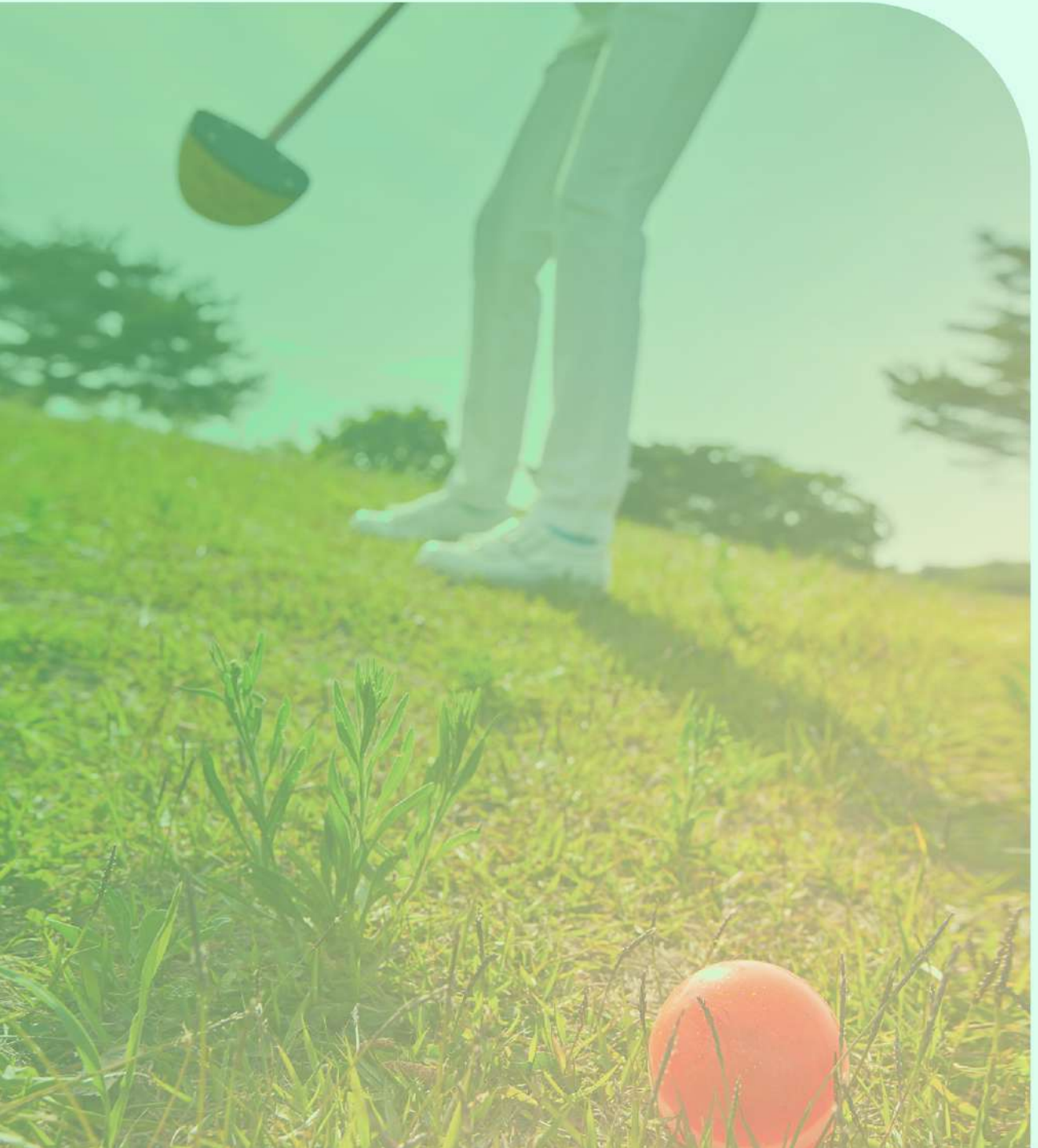


파크골프!!! 이제는 산업화와 프로화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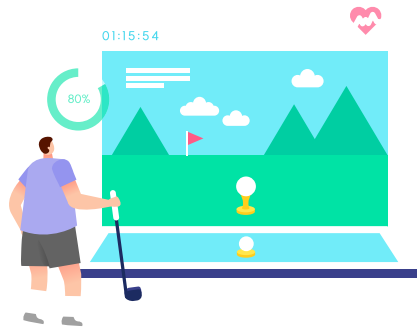
Vol.22



낮은 진입장벽 '미니골프'로 불리는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와 달리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18홀이라는 양적인 기준은 골프와 동일하지만, 그 이외 부분에서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낮은 진입장벽과 그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고령화 속도가 맞물리면서 파크골프 동호인이 어떤 종목에서도 기록하지 못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한 경기규칙, 안전성과 저렴성을 겸비한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국이 파크골프 사랑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름 6cm 플라스틱 공을 짧게는 30m, 길게는 150m를 넘는 홀을 전용채로 쳐서 20cm 홀컵에 넣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경기 방식과 장비는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넘어 공동체 소통 창구이자 관계 이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조 가까운 시장을 바라볼 만큼 매력 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스크린골프'라는 신개념 비즈니스를 창조한 대한민국의 창의성과 강력한 IT 기술은 이제 파크골프의 산업화를 넘어 프로화를 계획하면서 또 한 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자리매김

구축 파크골프는 단순한 생활체육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비록 일본이 파크골프의 종주국이라고 하지만 확산 속도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국가가 없습니다. 스크린은 일반 골프 이외에도 테니스, 야구, 사격, 탁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년층 등 고령자들도 스크린 환경 적응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스크린 스포츠가 트렌드로 자리 잡는데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는 2025년 말 전국에 200여 개 이상이 되는 등 일상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2025.7월 말 10개 브랜드 전국 스크린골프장 9,717개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입기이기에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스크린 파크골프는 일반 스크린골프장보다 기기 한 대당 필요 면적이 적다는 장점과 함께 기기당 투자 비용도 저렴해 창업 아이템으로 관심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스크린 파크골프가 주목받는 이유로는 기후변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운 날이 늘어나고 있고 비 오는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고르지 못한 기후 변화는 야외 활동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세먼지는 나이 들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미세먼지가 2010년대 중반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편해할 만한 수준

입니다. 야외 파크골프장이 수요자 증가 폭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스크린 파크골프장 증가 원인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아파트 상가에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공간적 부담감이 적습니다. 정주(定住) 지역과 근접해 있다는 것도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파크골프 장비의 진화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용채 대부분은 일본 제품이 많습니다. 시장규모에 대한 공식화된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련 협회 블로그를 인용할 경우 2023년 기준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30~50%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구요. 파크골프 전용채 생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10년이 안되는 짧은 이력이지만 샤프트 강도와 고탄성, 엘보 예방, 가장 불편해 하는 A/S까지 자체 R&D를 통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이제는 코스유형과 길이까지 다채로워지고 있어 거기에 걸 맞는 전용채 개발도 관건입니다. 아울러 체형과 스윙 스타일에 적합한 맞춤형 개인 전용채 생산뿐 아니라 샤프트는 가볍지만 탄성은 더 향상시켜 거리감을 높일 수 있는 클럽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 개발해야 할 영역입니다. 파크골프는 국내에 국한된 생활체육이 아닙니다.

중주국 일본을 넘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과 호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열풍이 불고 있어 시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인민망에서 2026년 한국 대통령 방중에 맞춰 실버경제 등 신흥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과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비즈니스의 매력은 빠른 저변확대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넓게 확산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크골프의 프로화

현재와 같은 열풍이라면 국내 대회를 넘어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국내 대회만 해도 500여 개가 개최될 만큼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우승 상금도 2억 원을 넘을 만큼 큰 대회도 많습니다. 이런 저변 확대는 프로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첩경(捷徑)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규격 마련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많은 동호인으로부터 사랑받는 PGA와 LPGA와 같은 골프도 1930년대에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립골프협회(R&G)에서 지정한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크골프도 우리나라에서 국제 규격을 마련하여 적용하면서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비즈니스로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국내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국내 파크골프 시장이 그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지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낮은 진입 비용'입니다.



파크골프 초기 진입 비용 중 가장 큰 것은 전용 채를 비롯한 장비 구매비용입니다. 기본 장비로는 나무로 만든 파크골프 전용 채와 6cm 공입니다. 2십만 원에서부터 2백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본 제품이 많지만,

국산으로 대체된다면 장비 구매비용은 현재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용채 가방, 장갑, 공보관용 소형 가방 등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골프는 드라이브, 우드, 아이언 등 최소 14개의 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쉽게 진입하기에 부담스럽지만, 파크골프는 기본 장비 구매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라운드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작게는 2~3천 원, 많게는 1만 원 내외입니다. 더군다나 사전 예약 없이도 전용 채만 갖고 다닐 수 있다면 전국을 여행하면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둘째, '접근성'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정주(定住)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좋습니다. 일반 골프장과 달리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 9홀만 갖추면 됩니다. 하천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에 방치되어 매년 관리 비용 부담이 가중되던 유휴지를 근린생활시설(2종)로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시설 확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0년 254곳에 불과하던 파크골프장이 2025년 8월 490곳으로 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시설이 증가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적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도시에 야외 파크골프장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각 구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는 2026년 1월에 철도 용지에 '용문 파크골프 퍼팅 연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효창공원앞역 인근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용산구는 지하철 역사 내 공실로 남아 있는 상가를 활용하여 실내용 스크린 파크골프장(삼각지점, 남산점)을 추가로 조성 중입니다.

강남구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습니다. 강북구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 중랑구는 구립 용마 경로복지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실외와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유입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일 뿐 아니라 미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셋째, '커뮤니티 확장'입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고민거리는 '고립'입니다. 고립은 외로움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우울증은 치매로 연계되는 사회적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바로 고립입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와 달리 반드시 팀을 만들어야 할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만큼 운동하기 위한 사전 조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없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사회 공동망 형성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1인 가구가 40%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파크골프만큼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은 없을 겁니다. 파크골프는 짧은 거리만큼이나 18홀 전체를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중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동반되고, 대화는 친목을 더 두텁게 쌓을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홀마다 거리가 평균 30m에서 150m 내외로 라운드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실제로 삼삼오오 파크골프를 즐기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 형성에 아주 좋은 취미활동입니다. 사회적 관계의 이음 역할을 합니다. 관계의 이음은 고립이라는 울타리를 걷어내어 주므로 정신적 건강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건강 행김의 파수꾼으로 파크골프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 산업을 잇다!!!

파크골프는 불쏘시개입니다. '파크골프'라는 단어를 매개로 전 방위산업을 잇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의 인기만큼이나 주변 산업 또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로 제시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약 1,0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품 브랜드는 100여 개가 경쟁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추론입니다.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인 인증업체는 총 144개입니다. 용품 제조업, 교육산업, 식품산업, 의류산업, 건설산업, 관광산업 등 파크골프를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의 다각화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입기여서 시장 규모가 1천억 원에 머물고 있지만 일본의 1조 시장과 아시아 전역으로 가파른 동호인 확산세를 고려할 때 시장 규모도 버금갈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파크골프와 관련한 영역별 콘텐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창동

KMA 시니어랩 전문위원
(인적자원개발학 박사)

KMA 시니어랩

초고령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의 시니어 대상 경력개발사업, 시니어 대상 정책 및 비즈니스를 개척하려는 조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행합니다.